



기술분석보고서 종이목재

유니드비티플러스(446070)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최승엽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의”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유니드비티플러스(446070)

목재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 기반의 MDF 전문기업

기업정보(2023/12/07 기준)

대표자	한상준
설립일자	2022년 11월 02일
상장일자	2022년 11월 28일
기업규모	대기업
업종분류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주요제품	원목, 목재가공품

■ 목재 가공제품 제조 전문기업

유니드비티플러스(이하 동사)는 2022년 11월 2일 (주)유니드 목재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규 설립되어 2022년 11월 28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주로 인테리어 내장재, 각종 가구,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MDF(중밀도섬유판)과 2차 가공제품인 LPM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올고다’ 브랜드를 런칭하여 주거 공간의 베이스가 되는 마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되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낮고 친환경성, 향균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시세정보(2023/12/07)

현재가(원)	7,820
액면가(원)	1,000
시가총액(억 원)	830
발행주식수	10,611,215
52주 최고가(원)	11,910
52주 최저가(원)	6,940
외국인지분율	1.74%
주요주주	
(주)유니드글로벌상사	25.06%

■ 높은 활용도에 따른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MDF는 전방산업인 주택경기 변동, 저가 수입산 물량 유입 규모, 목재 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다. 건설 산업의 경기 침체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테리어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산업 내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 친환경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소 산업 진출을 통한 성장 기대

동사는 수소가스 누출 예상 부위에 접착면이 있는 테이프나 패치 제품을 붙이거나 도포하는 방식으로 육안으로 손쉽게 수소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테이프, 패치, 페이스트 형태의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 정부의 수소법 개정으로 인한 청정수소 생산, 유통, 활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수소산업 진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0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2022	292.2	-	14.3	4.9	9.6	3.3	-	-	11.2	550	18,122	15.9	0.5

기업경쟁력

목재 가공품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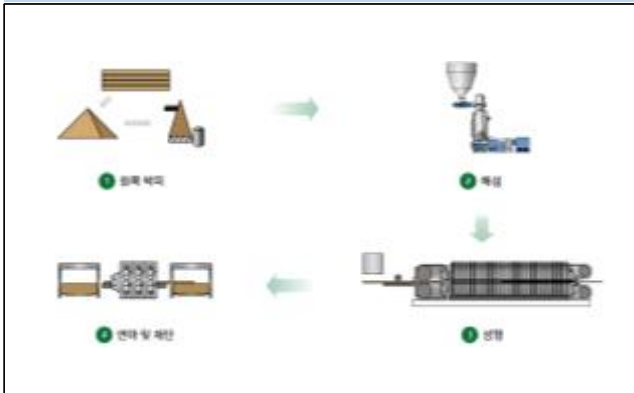
- MDF(중밀도섬유판)
- MDF 2차 가공제품
 - LPM, GLOSSPAN, ECOPAN, 제재목 등

사업 다각화

- 고강도 내수 마루 브랜드 '올고다' 런칭
- 수소가스 누출 감지 제품개발을 통한 수소 산업 진출 모색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제품의 제조과정



제품의 특징

- 친환경성, 향균성, 내화성 우수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3mg/L$ 이하

시장경쟁력

국내 MDF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0년	4,678억 원	▲5.34%
2025년	6,066억 원	

국내 제재부산물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0년	347억 원	▲0.88%
2025년	363억 원	

시장 성장의 특징 및 전망

- MDF는 높은 활용도로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 전방산업인 주택경기 변동, 저가 수입산 물량 유입 규모, 목재 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
 - 건설 산업의 경기침체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테리어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당사는 환경친화적인 MDF(중밀도 섬유판)를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함.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경영 활동 공시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Steam Separator 및 Boiler Economizer 설치하는 등의 설비 투자를 함.

S

(사회책임경영)

- 당사는 '인류의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한다' 라는 사명(Mission)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음.
- 임직원 임금의 일부를 직급에 맞춰 차등 기부하고 있으며,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

G

(기업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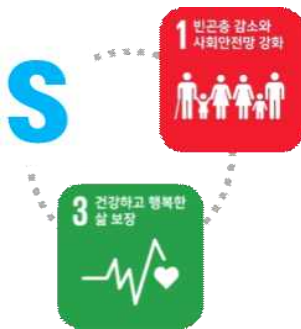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 윤리행동 규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 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친환경 목재 원료의 MDF(중밀도섬유판) 제품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 인증서 및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경영 활동을 공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Steam Separator 및 Boiler Economizer 등의 설비 투자를 하였다.



동사는 ‘인류의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한다’ 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이 임금의 일부를 직급에 맞춰 차등 기부하고 있으며,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2.12)에 따르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7.9%이며 동 산업의 여성고용비율 평균은 14.8%이다. 또한,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65.9%로 동 산업 평균인 106.8%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80.2%로 동 산업 평균인 81.6%에 근접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표 1]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백만 원)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97	1	198	17.0	5.9	17.2	43.4
여	16	1	17	11.2	6.3	13.8	35.4
합계	213	2	215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2),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회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 윤리행동 규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 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가구, 인테리어 등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

동사는 (주)유니드에서 목재 가공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목재사업을 인적분할로 설립된 업체로, 가구, 인테리어 등에 주로 사용되는 MDF와 마루, LPM 등 목재 2차 가공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2022년 11월 2일 (주)유니드에서 목재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주로 인테리어 내장재, 각종 가구,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재인 MDF, 마루, LPM 등의 2차 가공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소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2년 11월 2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한편,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씨아이(주) 대표이사인 이우현을 동일인으로 하는 오씨아이 기업집단에 속해있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오씨아이홀딩스(주) 등 총 7개의 상장사, (주)디씨알이 등 비상장사 15개 사, 총 22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22.11	(주)유니드비티플러스 설립
2022.11	코스피 시장에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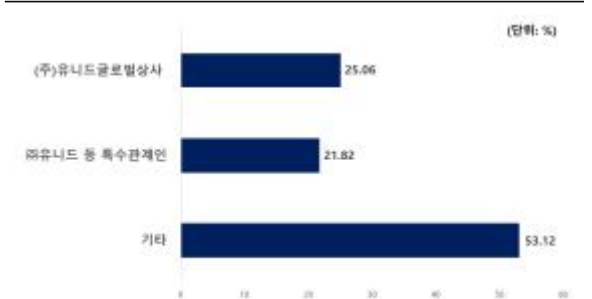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2023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25.06%를 보유한 (주)유니드 글로벌상사이며 나머지 지분 중 21.82%는 (주)유니드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53.12%는 기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표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지분율(%)
(주)유니드글로벌상사	25.06
(주)유니드 등 특수관계인	21.82
기타	53.12
합계	100.0

[그림 1] 동사의 주주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사업

동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에 주로 사용되는 목질판상재인 MDF, 마루, LPM 등의 MDF를 소재로 하는 2차 가공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PB, 원목 등의 목재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인적 분할 신규 설립 이전 1946년 10월 청구목재공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서울 중구 소재 본사, 인천광역시 소재 사무소, 성남 소재 연구소, 군산 소재 제조 공장, 대구광역시 소재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가구 및 인테리어 소재인 MDF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국내산 원목과 자체 생산한 친환경 접착제를 원료로 박(薄)판(2.7mm~), 후(厚)판(9mm~), 마루용 내수(耐水) MDF 등 다양한 두께와 규격의 MDF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B2C 사업 확장을 위해 마루 브랜드 ‘올고다(OLGODA)’를 2021년 2월 런칭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MDF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2022.12)[인적 분할설립 후, 2022년 11월, 12월 매출액 기준] 기준 매출 유형별 비중은 제품 매출(MDF, 포르말린 등) 88.9%, 상품 매출(PB, 제재목 등) 11.1%로 제품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동사의 주요 연혁

사업 부문		비율(%)	설명
제품	수출	2.0	MDF, 포르말린 등
	내수	86.9	
상품	수출	-	PB, 제재목 등
	내수	11.1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높은 활용도에 따른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MDF 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영향에 민감하지만, 가공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의 경기침체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테리어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MDF 시장의 개요 및 특징

MDF는 중밀도섬유판을 뜻하는 Medium Density Fiberboard의 약자로, 원재료인 톱밥에서 목섬유를 추출하고 접착제와 함께 고온, 고압으로 압착 성형하여 제작된다. 원/부재료의 가격과 건설 경기 등의 전후방 산업과 수입품의 가격 등의 영향에 민감한 제품이나, 기계 가공성과 강도가 우수하여 일반 목재를 대신하여 가구 등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적용 범위가 다양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크기가 작고 굴곡이 많은 국내산 목재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 가변성

MDF 시장의 전후방 산업은 톱밥, 접착제 등의 제재부산물 → MDF(중밀도섬유판) → 마루판,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방산업인 주택경기 변동, 저가 수입산 물량 유입 규모, 목재 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전방산업인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주택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마루제품군은 대부분 건설사 대응 물량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2019년 이후 전방산업인 주택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향 동남아산 저가 보드의 국내 유입 확대로 판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1년 경기 회복세 및 물류난에 따른 수입품 국내 유입 감소로 MDF 판가가 급등하는 등 국내 MDF 업체에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되며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국내 MDF 시장의 전망

국내 MDF 시장은 2020년 4,678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5.34% 증가하여, 2025년에는 6,06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의 경기침체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테리어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MDF의 전후방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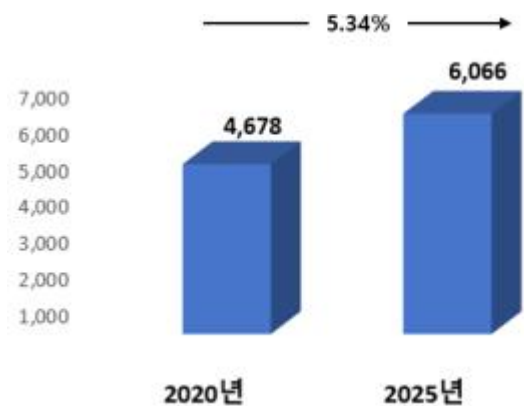
구분	톱밥, 접착제 등	MDF	건설산업, 가구산업 등
제품	톱밥, 접착제, 목섬유		마루판, 가구
업체	동신제재소, 한솔홈데코, 썬시스템즈	유니드, 동화기업, 선앤엘, 한솔홈데코	엘지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 국내 제재부산물 시장의 전망

제재부산물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등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하며 톱밥, 펠릿 등이 있다. 환경오염과 석유자원의 고갈 등으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 및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비료 혹은 연료 목재 펠릿으로 제재부산물의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다. 톱밥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제재소 가동률이 저하되어 생산량이 줄었고, 친환경 연료로 공급되는 톱밥 사용량이 증가하여 톱밥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재부산물 시장은 2020년 347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0.88%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36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국내 MDF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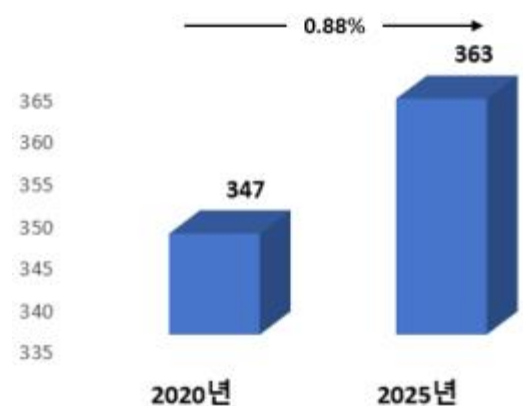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국내 제재부산물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NICE디앤비 재구성

■ 폐목재 시장의 특징

MDF 산업은 폐목재를 원재료로 하는 자원 재활용 산업으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영업 안정성에 필수적이므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목재 원재료의 정책적 보호주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폐목재의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유출경로의 경우는 크게 물질 재활용, 에너지 활용, 매립처분 및 불법처리로 나뉘고, 폐목재가 MDF로 재활용되는 양은 약 85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4] 폐목재의 종류 및 재활용 처리과정



*출처: 한국폐기물협회(www.kwaste.or.kr)

■ 경쟁사 현황

MDF 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수 의존형 사업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87%로 국내 기업인 유니드비티플러스, 동화기업, 한솔홈데코, 선앤엘, 프레스코 등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MDF의 수요가 드물고 수요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동화기업은 두께 3mm 이하의 박판 MDF를 주로 생산하며, 포름알데히드 유출이 거의 없는 제품 비중이 높으며, 한샘, 리바트 등의 가구업체에 주로 공급하고 있다. 한솔홈데코는 2014년 MDF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태워스팀을 생산하고 전력으로 변환해 판매하는 열병합발전사업을 진행하여 자원 재활용의 효율을 높였다. 선앤엘은 목재 원자재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남섬 말보로의 노스뱅크와 벤호파이 지역에 3,949ha 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포레스코는 MDF 제작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천연 식물성 수지로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국제 친환경 기준의 최고등급인 NAF(Non Added Formaldehyde)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표 6] 국내 MDF 시장점유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유니드비티플러스	28.6%	28.8%	27.5%
동화기업	28.0%	28.5%	26.6%
한솔홈데코	19.7%	18.7%	19.0%
선앤엘	11.8%	12.7%	14.9%
포레스코	11.9%	11.3%	12.0%

*출처: (사)한국합판보드협회(2023) NICE디앤비 재구성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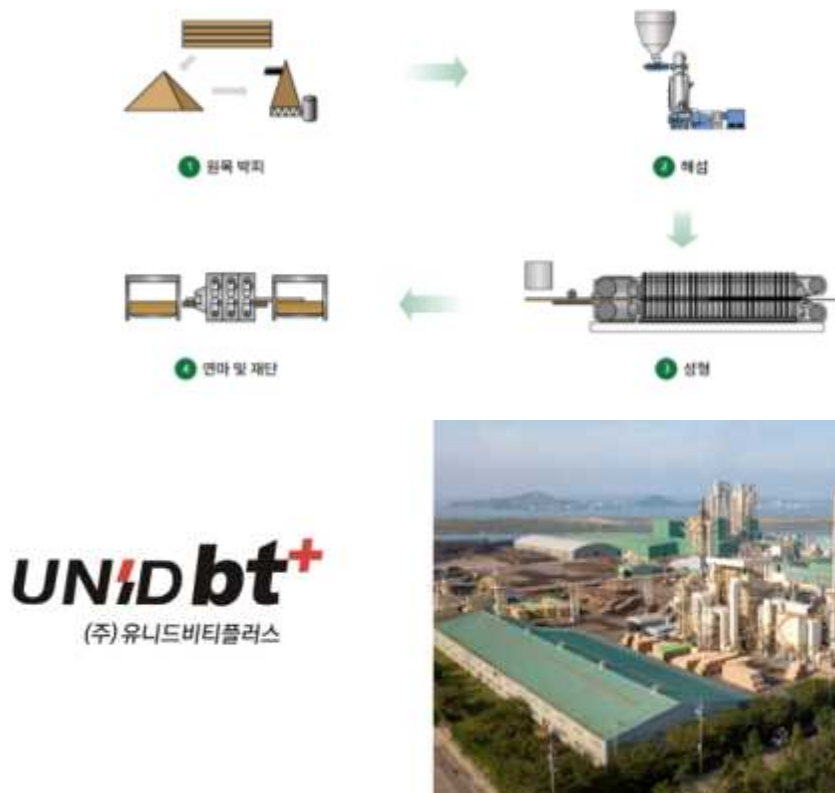
우수한 제품 물성, 친환경성의 MDF, LPM, 마루 제조기술 보유

동사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SUPER E0급으로 감소시키고 미국 방염보드 성능 기준을 통과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MDF와 LPM, 마루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MDF

MDF는 목재에 있는 섬유소를 분리, 추출하여 수지를 도포한 후 성형, 열압을 통해 제조되는 밀도 $400\sim 800kg/m^3$ 의 목질 판상 제품이다. 동사의 제품은 두께별로 다양한 가구재나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된다. 2.0~8.0mm의 박판은 가구, 싱크대 뒷판/앞판, 서랍 밀판, 책상 측판, 파티션, 내장용 인테리어, 소품용 등으로 사용되고, 9.0~3.0mm의 후판은 가구, 싱크대 도어, 침대 몸통/머리판, 식탁, 인테리어 몰딩, 액자, 시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동사는 국내의 활엽수와 침엽수의 목질을 주원료로 친환경적이며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①원목 박피하여 칩 생산, ②생산된 칩에 고온/스팀을 가하여 해섬, ③기계적인 힘을 가하여 섬유소 생산, ④고온/고압의 프레스를 통해 보드 생성, ⑤보드의 표면을 연마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재단의 공정으로 제조된다.

[그림 5] 동사의 MDF 생산공정 및 브랜드, 생산시설 전경



*출처: 동사 홈페이지(unidbtplus.co.kr)

■ 친환경 MDF 제품 제조기술 보유

동사는 ‘Super E0급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중밀도 섬유판용 접착제(특허 등록, 제 10-0552548)’ 관련 기술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SUPER E0급으로 현저히 감소시킨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물비의 포름알데히드/아미노기를 통해 제조된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와 경화제를 혼합 사용하여 수지 내 미반응 포름알데히드의 양을 급감시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0.3mg/L 이하로 낮출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표면의 수포 및 스틱킹 발생 방지 등의 물리적 성질도 우수하게 개선하였다. 동사의 제품은 친환경 인증과 함께 건축재료방출규정 테스트를 최상등급으로 통과했고, 국내 MDF 생산업체 중 처음으로 일본 국토교통장관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또한, 목재 건축자재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해 미국 방염보드 성능 기준인 ASTM E84 Class A 기준을 통과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MDF 소재 2차 가공제품

동사는 LPM, GLOSSPAN, ECOPAN 등의 MDF를 소재로 하는 2차 가공제품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LPM(Low Pressure Melamine)은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종이 사이에 MDF를 넣어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한 판상재 모양의 소재이다. 주로 가구 제작에 사용되며 열과 굽힘에 강하다. GLOSSPAN은 친환경 표면마감재 전문업체인 현대 L&C의 PET SHEET를 사용하여 MDF에 접착한 제품으로 100% PET 및 내수, 내약품, 내유, 내균, 내오존, 저온 특성, 내열성 등 제반 물성이 뛰어난 PUR(폴리우레탄레진) 접착제 사용으로 친환경성을 높인 제품이다. 가공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표면 마감재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ECOPAN은 Eco Friendly Panel을 의미하는 동사의 UV보드로, 동사의 연구개발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코팅액을 적용하여 표면 품질과 향균력이 우수하다. 생활 속 세균의 99.9% 이상의 향균력을 보유하고 포름알데하이드와 TVOC 방출량이 낮은 친환경 건축자재이다.

[표 7] ECOPAN 제품의 향균력 시험결과

시험항목	ECOPAN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세균감소율 99.9%		
녹농균, 폐렴균, MRSA균	세균감소율 99.9%		
곰팡이 저항성(5종)	균사의 발육이 인지되지 않음		
시험항목	단위	기준	ECOPAN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text{mg}/(\text{m}^2 \cdot \text{h})$	0.1 이하	0.025
톨루엔(Toluene)	$\text{mg}/(\text{m}^2 \cdot \text{h})$	0.08 이하	불검출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text{mg}/(\text{m}^2 \cdot \text{h})$	0.015 이하	0.001

*출처: 동사 홈페이지(unidbtplus.co.kr)

■ 고강도 내수 마루제품

동사는 가구 및 인테리어 소재 중심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인 '올고다'를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고다는 동사의 MDF 소재의 목질 마루를 시작으로 우수한 품질, 차별화된 디자인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의 마루는 최고급 표면재인 HPL을 적용한 고강도 올코어 강마루로 일반 합판 강마루 대비 5배 이상 꺾힘에 강하고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저치로 낮춘 친환경 최고 등급 SUPER E0 보드와 국산 소나무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였다. 올고다의 마루제품은 크기, 색상, 소재 등에 따라 벤티움, 로카&로카 프리미엄, 오브제, 밸런스, 시그니처, 그루브로 구분된다. 마루 시공 후 1년 이내라면, 보수까지 가능한 무료 마루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표 8] 올고다의 제품별 특징

	특징
벤티움	190mm x 1,900mm 초광폭 사이즈, 4배 높은 해상도, 4배 넓은 패턴 반복 주기
로카&로카 프리미엄	일반 마루 대비 4배 넓은 광폭 사이즈, 모던하고 시크한 색감, 로카 프리미엄은 로카 대비 1.5배 커진 600mm x 1200mm의 길이로 가장 큰 사이즈
오브제	165mm 광폭과 1,205mm의 길이,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과 우드그레인 질감
밸런스	고강도 내수 코어재인 올코어(OL-core)와 내수성이 강한 합판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하여 우수한 강도, 습기에 강하여 온돌 난방에 최적화
시그니처	라인업 중 가장 넓은 143mm 광폭, 고급 천연 나무 수종을 선별하여 깎아 만든 천연 원목 단판
그루브	115mm 중폭, 천연 원목 질감, 고강도 HPM 사용으로 우수한 내구성

*출처: 동사 홈페이지(unidbtplus.co.kr)

■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안정적인 매출규모 지속

동사는 MDF, 포르말린 등 목재 2차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MDF 국내 1위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 매출 외형 유지 지속

제품(MDF 등) 판매 규모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동사는 2022년 11월 인적분할 이후에도 각 분기별로 4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시현하며 2023년 3분기 누적 1,263.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 중 제품 판매액은 2023년 3분기 누적 1,119억 원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88.5%의 비중으로 매출규모 및 비중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 기록

동사는 2022년 11월 분할 설립 후, 11월, 12월 두 달간 292.2억 원의 매출액, 14.3억 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4.9%)과 9.6억 원의 순이익(순이익률 3.3%)을 기록였다. 이후, 2023년 원가 부담이 증가하여, 2023년 3분기 누적 36.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수익성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유형자산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발생으로 인한 영업외수익 증가로 2023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3.3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양호한 수준의 재무구조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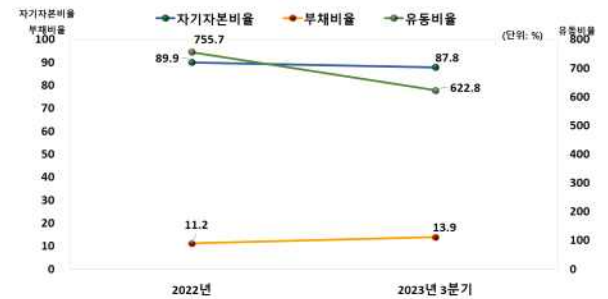
2022년 11.2%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후, 2023년 3분기에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 1호를 현금출자 형태로 중속기업으로 취득한 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가 증가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2023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13.9%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동비율도 2022년 755.7%를 기록한 후, 2023년 9월 말 622.8%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9]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매출액	-	-	292.2	-	1,263.6
매출액증가율(%)	-	-	-	-	-
영업이익	-	-	14.3	-	-36.3
영업이익률(%)	-	-	4.9	-	-2.9
순이익	-	-	9.6	-	13.3
순이익률(%)	-	-	3.3	-	1.1
부채총계	-	-	215.0	-	268.1
자본총계	-	-	1,921.3	-	1,934.9
총자산	-	-	2,136.3	-	2,203.0
유동비율(%)	-	-	755.7	-	622.8
부채비율(%)	-	-	11.2	-	13.9
자기자본비율(%)	-	-	89.9	-	87.8
영업현금흐름	-	-	12.2	-	41.7
투자현금흐름	-	-	-280.7	-	-453.6
재무현금흐름	-	-	-1.3	-	57.3
기말 현금	-	-	548.1	-	193.9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브랜드 런칭으로 시너지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대

동사는 마루 브랜드 '올고다'를 런칭하여 B2B 사업 강화와 B2C 사업의 확장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수소 산업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마루 브랜드 '올고다' 설립

동사는 기존 가구 및 인테리어 소재 중심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 '올고다'를 런칭하였다. 친환경, 고강도, 독보적 디자인, 소비자 친화적 보증 시스템을 앞세운 마루 브랜드로, 무료 시공 서비스 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B2B 사업 강화와 B2C 사업의 확장을 통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본업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매출액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수소가스 감지 제품개발

동사는 육안으로 손쉽게 수소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수소 산업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는 중이다. 동사의 수소가스 감지 제품인 'HyFinder'는 수소가스를 취급하는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프, 패치, 페이스트 형태로 제작되어, 밸브, 플랜지, 피팅, 커넥터, 파이프 등의 수소가스 누출 예상 부위에 접착면이 있는 테이프나 패치 제품을 붙이거나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와 직접 반응하며 색이 변해 누구나 육안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정부의 수소법 개정으로 청정수소 생산, 유통, 활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수소산업 진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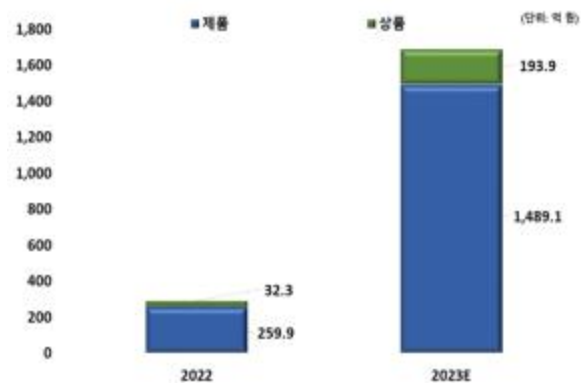
[그림 9] 수소감지 제품의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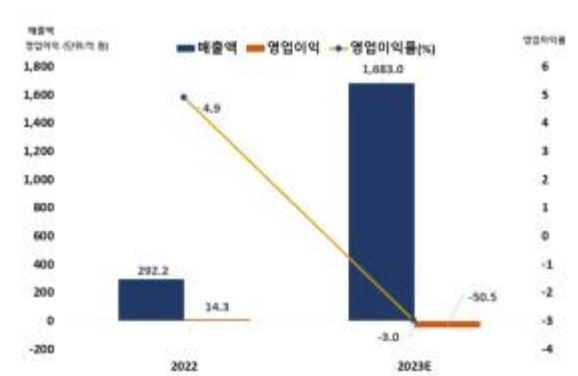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2022년 11월 인적분할 이후, 11월, 12월 292.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고, 2023년 3분기 누적 1,263.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2023년 매 분기 약 420억 원의 매출이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분기 대비 부문별 매출액증가율 적용 시 2023년 전체 매출은 1,683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동사의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그림 11]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10]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0	2021	2022	1Q2023	2Q2023	3Q2023	2023E
매출액	-	-	292.2	414.5	836.9	1,263.6	1,683.0
제품	-	-	259.9	370.5	747.1	1,119.7	1,489.1
상품	-	-	32.3	44.0	89.8	143.9	193.9
영업이익	-	-	14.3	-7.9	-20.8	-36.3	-50.5
영업이익률(%)	-	-	4.9	-1.9	-2.5	-2.9	-3.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2023년 분기별 실적 및 전망은 분기 누적금액)

* 동사는 2022년 11월 (주)유니드에서 인적분할하여 신규 설립 및 상장하였음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2] 동사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증권(2023년 12월 7일)